# 김천도서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경상북도 김천시의 시립도서관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책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던 아트(Mordern Art)라고 명명된 이 책은 이탈리아의 출판사인 아트미디어사가 2천부(이탈리어판 1천부, 영어판 1천부)만을 제작, 전 세계에 한정 보급한 것이다.

가로 100.1㎝, 세로 70.1㎝, 무게 32㎏에 달하는 모던아트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책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으며 가격도 웬만한 책의 1천권 값에 해당하는 880만원에 달한다.

이 책에는 혁명과 회화라는 주제로 피카소와 밀레, 고갱, 고흐, 모네, 뤼미에르 등 세계적인 동서양 유명작가 220명이 그린 근현대의 명화 265점이 544쪽에 걸쳐 수록돼 있다.

아트미디어사는 모던아트를 원작에 가깝도록 만들기 위해 세계 최고의 사진작가 수십 명을 동원, 그림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인쇄부터 제본까지 전 과정을 명인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토록 했다. 또한 원작의 감동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실물크기로 만들었으며 최고급 아트지에 석판 5도로 인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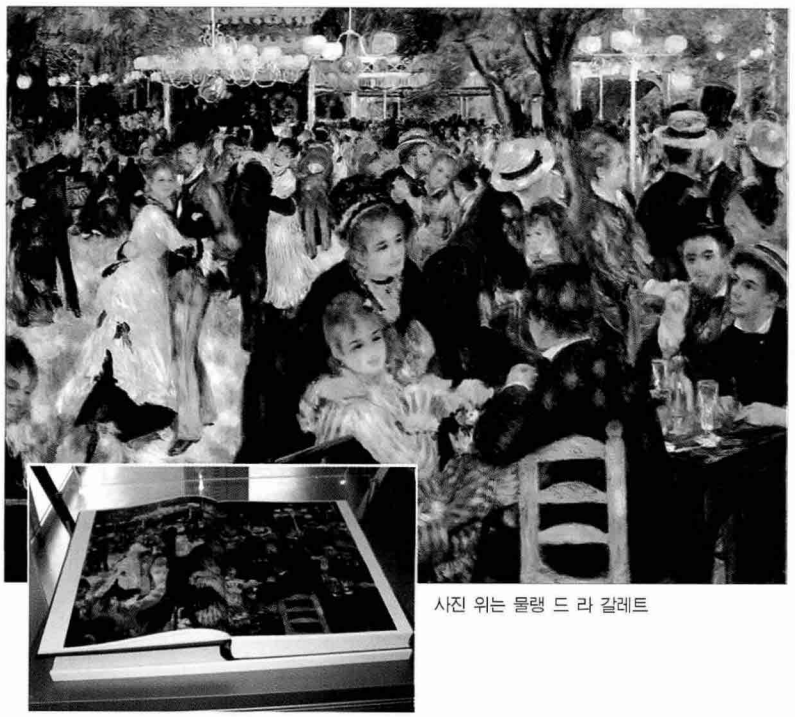
이 책의 국내 보급을 맡고 있는 아트미디어아시아의 안호연 마케팅팀장은 "20여년전 루브르박물관이 비슷한 화보집을 제작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책은 루브르박물관 소장 작품만을 수록하였지만 모던아트는 전세계 40여개 미술관과 개인 소장가의 작품을 두루 수록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전문가들도 모던아트가 훨씬 더 진일보한 인쇄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작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모던아트는 책 자체가 전시장이나 서재의 품격을 높여주는 기구

**세계에서 가장 큰 책**

도서명 : 모던 아트
크기 : 가로 100.1㎝, 세로 70.1㎝
무게 : 무게 32㎏
가격 : 880만원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책으로 기네스 북에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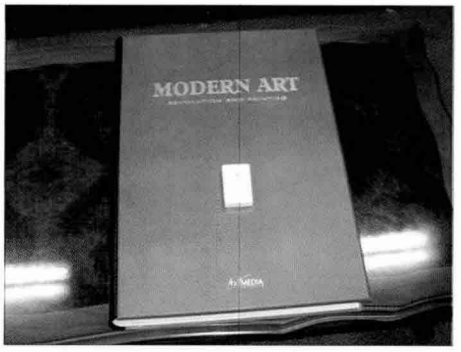



사진 위는 물랭 드 라 갈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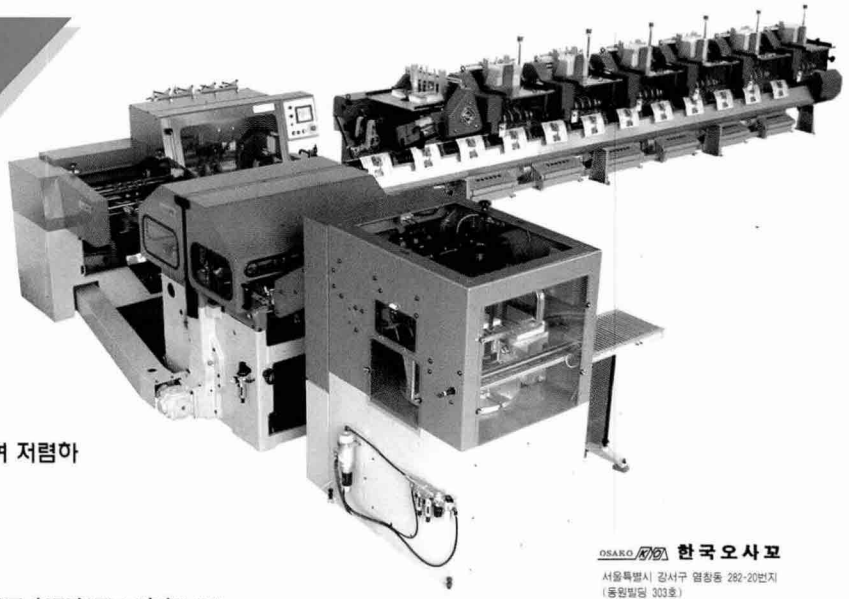
로서의 역할까지 하도록 고급스럽게 제작됐다"며 "이처럼 어렵게 제작된 책이지만 이 책의 가치를 아는 고객에 대한 봉사차원으로 철저한 사후 관리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의 목적으로 책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모던 아트는 2003년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에서 상당한 주목을 끌었던 작품이기도 하다. 김천시립도서관에 모던아트를 공급한 온라인 전문서적 유통업체 티메카코리아의 김태진(38) 사장은 "2003년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에서 화제를 크게 불러모았던 모던아트를 발견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판권을 따왔다"며 "모던아트는 한국에서 판매된 이후 일본과 홍콩, 대만 등지에도 판매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립도서관측은 모던아트를 하루에 한 장씩 넘겨 전시함으로써 도서관 이용객들이 실물과 같은 크기의 명작을 매일 다르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갑준 기자〉


# 오사꼬의 최첨단 중철기를 만나보십시요

SADDLE STITCHER ESTAR



●사용편리성

대부분 공구없이 기계의 각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며, 5인치 모니터시스템 및 터치패널을 도입, 간단히 기계를 셋업해 제본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최첨단 오사꼬 중철기를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안전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커버는 작업자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OSAKO 한국오사꼬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82-20번지 (동원빌딩 303호)

전화 : (02)2658-1852, 1858

팩스 : (02)2658-1858